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음 11월 25일) 제17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산란계 시 확산... 계란 대란 현실로

20일 기준 특란 30개 소매가 6781원으로 한달전보다 25.3% 올라 달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케이크 가격도 급등 우려 정부 대안 내놓지 못해 식료품 가격 인상 당분간 이어질 듯

연말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필수 소비재라 할 수 있는 라면 값이 최근 오름데다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AI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가금류 살 처분이 늘어나 공급 부족으로 달걀값이 급등해 대형마트들이 '1인 1판'으로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일 기준 특란 30개 소매가는 6781원으로 한 달 전(5408원)과 비교

해 25.3% 올랐다. 달걀값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걀 대란의 이유로 케이크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연중 가장 케이크가 많이 팔리는 '대북'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제조사가 모든 가격 인상을 요인을 자체적으로 감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제조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인데 각 케이크 제조업체들은 기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선보인 제품에만 급등한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업체들은 자체 액란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달걀을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만 중소 제과·빵업체들은 급등한 달걀 인상을 내부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비교적 달걀 값이 저렴할 때 미리 케이크를 만들어두는 것으로 나타나 달걀 대란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해 식료품 가격 인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AI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닭고기 가격도 급등할 우려가 크다

다 달걀을 원료로 쓰는 제빵과 과자 등 가공식품들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식품업계의 전언이다.

대다수의 제빵업체들은 1월까지 가격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제품값을 올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내 대형마트들도 지속적으로 달걀 값을 올리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도매로 달걀을 받아서 사용하는 제과·빵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는 점이다.

제빵업체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부터 당장 기존 제품 가격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케이크의 경우 제품 특성상 값이 천차만별이어서 값을 소폭 올려도 소비자들은 둔감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달걀은 케이크나 빵 반죽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샌드위치, 타르트, 아이스크림 등 용도가 다양해 더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도내 교사들 "학교, 민주적으로 변화"

교육정책연구소 조사결과 교육청 획일적 지시도 줄어

전북지역 교직원들은 지난 5년간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다.

22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윤석)는 '학교자치에 대한 전북 교직원의 인식연구 보고서'에서 전북지역 교직원들은 최근 5년간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

고 있으며 교육청의 획일적 지시와 지시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학교의 민주적·자율적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에 대해 연구자 정재균 박사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 지정,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자치조례 제정 등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로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전북의 성과를 인정하고 벤치마킹하고자 문의한다"고 설명했다.

/정해은 기자

군산 시민단체 "군산시의회 청렴지수 제고 노력 필요"

군산시의회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의 청렴지수에 대해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의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기초의원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종합청렴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는 29개 기초의회 전체조사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6.03보다 못한 5.71로 24위를 차지하는 등 낮은 청렴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평가인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평가는 각각

5.55, 5.51로 평균 0.5%가 낮았는데, 이는 군산시의회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유권자에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중 직무관련 평가(의회운영 청렴지수)에서 의의성출장 6.43점, 부패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노력 6.84점으로 조사항목 가운데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군산시의회는 의회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의사결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순실과 우병우는 상하관계"

'비선 최순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기흥CC 골프장 소속 종업원 세 사람의 음성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골프장 종업원은 "우병우를 최순실이 찾아준 거? 최순실이 음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다"며 "김장자 회장이 그랬어, 최순실이 '난 여기 기흥만 오면 소풍 오는 기분'이라고,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종업원은 "그 여자가 (운영하는) 업체는 (실 만드는 회사고), 사장이거든"이라며 "최순실은 '이영희'로 왔거든. 컴퓨터에 입력 전에 다른 이름을 넣으니까 최순실 이름이 이영희로 들어간다. 우병우는 최순실거 다 막아주고, 골프장 밖에서 '상하관계'"

최순실 국정특위 5차 청문회

김장자가 운영하는 기흥CC 골프장 종업원들의 녹취록서

"최순실이 음과 동시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

우병우는 "납득이 안돼" 반발

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이 골프장에서 '이영희'라는 가명을 썼고, 최순실과 우병우가 '상하관계'였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녹취록을 공개한 뒤, "최순실은 기흥CC에 평균 2주에 한 번 플로 방문했고, 김장자 회장은 최순실만 오면 비선발로 뛰어가 즐겁게 맞았다. 그런 인연으로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됐다"며 "결국은 우 전 수석과 최순실, 문고리 3인방 등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패거리로 이뤄고, (모두) 이번 최순실 사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저는 이런 이야기(녹취록)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음성이 변조돼 있고, 무슨 2주에 한 번 와서 비선발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 전임 민정비서관은 검찰 4년 후배다. 4년 후배가 1년 이상 근무한 자리에 가는 게, 그게 무슨 영전이었느냐"며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제안해 워낙 어려운 제안이라 승낙은 했지만 (후배보다) 4년, 5년 뒤에 후배 뒷자리로 가게 맞느냐, 동기들이 검사장 된지 1년 반이 됐는데 1급 비서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를 놓고 사심대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은 "인사 청탁으로 인한 발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우병우가 차은택 법적조력자 소개시켰다"

(김기동)

노승일 전 K스포츠택단 부장 5차 청문회서 폭로... 우병우 "그런적 없어"

노승일 전 K스포츠택단 부장은 22일 국정농단 최순실의 동업자 차은택의 법조 조력자가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고, 김 단장을 차은택에 소개시켜 준 인물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폭로했다.

노 전 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주장했다. 노 전 부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신서"를 즉석에서 하고 정식 증인 신분으로 관련 증언을 했다.

그는 "차은택의 법적조력자가 김기동이고, 김기동을 소개한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라는 얘기를 고영태한테 들었다"고 밝혔다.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때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차은택 역시 노 전 부장은 이날 최순실에 소개해서 발탁된 인물이다. 차은택의 법적조력자로 지목된 김기동 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노 전 부장은 이어 "고영태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많은 대화

를 하면서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결론적으로 우병우와 최순실은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이냐"고 묻자, 노 전 부장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김기동을 차은택에게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며 "차은택 씨든 김기동 씨든 여기 불려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시스

한국장학재단 하면 떠오르는 것...

1.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기부에 동참해주세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다

고등학교 재학 시 쓰러지셨다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를 보며, 제겐 '간호사'라는 소중한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 진학 후,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학점이 4점대로 오를 즈음, 저는 너무나 고맙게도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아소녀 주디의 소중한 꿈을 지켜 주었던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를 아시나요?

칭찬의 말씀과 용기를 주는 조언들 속에서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회의 온정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주위에 저를 자랑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나눔의 감동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2회 기부장학사업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사례중)

기부방법 및 문의

- 무통장 입금 (예금주: 한국장학재단)
 - 우리 1005-601-531623
 - 하나 175-910011-87604
 - 신한 100-025-420820
 - 외환 630-006841-710
- 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결제, 방문카드 등 가능
 - ☎ (개인) 02-2259-2621 ☎ (법인) 02-2259-2622
 - ☎ (ARS 소액기부) 080-700-1003 (한 통에 2천원)

법정기부금 단채로 개인 100% 세액공제, 법인 50% 손금산입됩니다. 기부금은 운영비 사용없이 100% 장학금과 인재육성, 기숙사 건립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